

2004. 6. 20. 울산시

1. 다음 중 로마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?

- ① 썩과리 [Kkwaenggwari]
  - ② 무궁화 [Mugunghwa]
  - ③ 애국가 [Aegukga]
  - ④ 집현전 [Jibhyunjeon] ✓
  - ⑤ 흥부전 [Heungbujeon]
- 해설 [로마자 표기법]
- ④ 집현전 [Jiphyeonjeon]

2. 국어 사전의 규칙상 세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것은?

- ① 귀신 ✓
  - ② 궤도
  - ③ 구름
  - ④ 규칙
  - ⑤ 그림자
- 해설 [자모의 순서]
- 사전은 자모의 순서를 따르므로 ③→②→①→④→⑤의 순서대로 찾을 수 있다.

3. 다음 중 '울'과 '률'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?

- ① 백분율
  - ② 능률
  - ③ 비율
  - ④ 법률
  - ⑤ 합격율 ✓
- 해설 [한글 맞춤법]
- ⑤ 모음이나 'ㄴ' 받침 뒤에 이어지는 '렬, 률'만 '열, 율'로 적는다. → 합격률

4. 다음 중 ㉠, ㉡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은?

남북의 언어가 이질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분화의 연대가 아직 반세기에도 미치지 않았고 맞춤법과 같은 표기법은 원래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진 만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동질성의 회복이 생각 밖으로 쉬워질 수 있다. 문제는 어휘의 이질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귀착된다. 우리가 먼저 밟아야 할 절차는 이질성과 동질성을 확인하는 일이다. 이념이나 체도에 관련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동질적 요소가 많다.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질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를 생각하여야 한다. 이질성의 극복을 위해서는 이질화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. 극복의 문제도 단계를 밟아야 한다. 일차적으로는 ( ㉠ )의 과정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최종적으로 ( ㉡ )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 ( ㉠ )의 과정은 북쪽의 문헌이나 신문을 본다든지 텔레비전, 라디오를 시청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극복의 원초적인 단계이다. ( ㉡ )은 전문 학자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.

남기심, 『남북 언어 통일의 방향』

- ① 적응-선택 ✓
- ② 접촉-적응
- ③ 합의-접촉
- ④ 학습-합의
- ⑤ 논술-배제

해설 [생략된 정보의 추리]

남북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쪽의 방송 언어 매체를 통해 북한의 언어에 적응을 해야 하고, 최종적으로는 전문 학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.

5. '신들메를 고쳐 매다'의 뜻은? 1

- ① 신의 끈을 고쳐 매다.
- ② 신명이 들어 자빠져 있다.



- ① ‘매(每)’와 ‘마다’의 의미가 중첩되었다.
- ② ‘교직원’ 안에 ‘교사’도 포함된다.
- ③ ‘키보드’와 ‘자판’은 같은 말이다.
- ④ ‘PC(personal computer)’의 ‘personal’과 ‘개인용’의 의미가 겹친다.

9.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? 3

- ① 다리를 오므리다.
- ② 안경의 도수를 돌권 껴야 할 것 같다.
- ③ 전국에 내노라하는 장사들이 모였다.
- ④ 시대 흐름에 발맞춰 살아야 한다.
- ⑤ 동생이 병원에서 나오기에 부축했다.

해설

- ③ 내노라하는 → 내로라하는

10.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맞는 것은?

- ① 푸른 광장에 4천명이 모였다.
- ② 나는 이미자씨를 좋아했다.
- ③ 운집한 군중들을 주의깊게 보니 4천여명은 족히 된다.
- ④ 그가 공부한 지 6개월이 안된다.
- ⑤ 선생님의 한 마디가 나를 부끄럽게 했다.

해설

- 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. → 4천 명
- ② 이름에 덧붙는 호칭어, 관직명은 띄어 쓴다. → 이미자 씨
- ③ ‘-여’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고, ‘명’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 → 4천 여 명
- ④ ‘안’은 ‘아니’의 준말로써 부사에 해당하므로 띄어 쓴다. → 안 된다

11. 다음 중 독음이 틀린 것은?

- ① 왜곡(歪曲)    ② 미흡(未洽)    ③ 개전(改悛)    ④ 소생(甦生)    ⑤ 유약(懦弱)

해설

- ⑤ 나약(懦弱) \* 懦 : 나약할 나